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이런 걱정

우리집 아이들은 하나같이 작고 말랐다. 남편이 퇴근길에 두 손 무겁게 뭘 사 갖고 와도 누구 하나 신나서 달려 나오는 사람이 없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야식 먹을까? 치킨 먹을까?" 와 같은 가슴 설레는(적어도 나에겐 그렇다) 말을 해도 아이들의 미지근한 반응에 김이 새고 만다.

어제는 명장이 만들었다는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줄까지 서서 빵을 사다 줬지만 역시나 반응은 시큰둥. 그나마 아이들이 서로 먹겠다며 관심을 보인 빵은 맛있어 보이는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빵들이 아니고 밋밋한 바게트, 소금빵, 소보로 같은 것들이었다. 전형적인 마른 아이들의 공통점은 살찌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맛있다면서도 더 먹지 않는다, 과일을 좋아한다, 식사를 오래 한다.

이러니 무슨 살이 찌겠나 싶어서 한숨이 난다. 첫째가 미취학 아동일 때 또래보다 작고 말라서 걱정을 하니 주치의가 버터에 밥을 비벼 먹여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실패. 첫째는 버터밥을 좋아하지 않았다. 버터밥을 좋아할 정도면 보통 말랐다며 걱정할 리가 없지 않나?

하긴 나도 어려서는 먹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았었다.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였다. 먹기 싫은 걸 먹으라며 엄마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지금까지 먹은 음식도 도로 올라올 것만 같았다. "밥알을 새고 있냐... 밥상에서 기도하냐... 뭘 그렇게 맛없게 먹냐" 라고 밥상에서 혼이 날 때면 식사 시간이 괴롭고 밥은 더 맛이 없었다. 왜 그렇게 먹는 게 싫었을까...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2차 성징이 시작되었던 중3 전까지는 먹는데 큰 관심이 없었다.

난생처음으로 떠먹는 요거트를 먹었던 일이 기억난다. 떠먹는 요거트는 내가 국민학생일 때 처음 등장했으나 편식쟁이였던 나에게는 당연히 환대 받지 못했다. 성당 여름 성경학교에서 간식으로 나왔을 때도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었고 엄마가 몇 번 사 왔을 때도 오빠만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6학년 때인가 수영장에서 어느 어른이 내게 복숭아맛 떠먹는 요거트를 사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먹게 되었다. 그때 그 어른이 친구 엄마였는지 엄마의 친구였는지 전혀 기억이 없지만 단둘이 수영장 휴게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요거트를 사주셨다. 나는 어린이였지만 6학년이면 눈치를 볼 나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그 요거트를 다 먹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마치 약을 먹듯이 입에 넣고 삼키기를 몇 차례, 그러다가 요거트 반 통 정도를 비웠을 때 이상하게 꽤 맛있게 느껴졌다. 그날 처음으로 요거트가 생각보다 달고 맛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없어서 못 먹었지 늘 맛있게 먹었다.

아무튼 지금의 나는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기 때문에 내가 편식쟁이에 소식가였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바나나 우유 한 통, 롯데리아 새우버거 하나를 혼자 다 먹지 못했던 내가, 지지리도 편식이 심했던 내가... 어느덧 이렇게 후덕한 중년이 되었으니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내게 걱정도 팔자라며 먹는 걸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 입으로 뭐 하나 더 들어가야 안심이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이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싹 비운 밥공기를 보면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이런 게 "너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같은 걸까? 그러나 실상은 나만 잘 먹어서 내 배만 불러오고 아이들은 빼짝 말랐으니 이것 참 걱정이네. 누구는 너무 먹어서, 누구는 너무 안 먹어서... 이런 걸로 걱정을 하고 있다니 참...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최근 판매한 매물들 —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780 W Rosslynn AVE FUL	$950,000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